

걸프지역 국경분쟁 고찰



세계 석유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中東지역은 항상 국경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기후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라는 2가지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사막의 강한 모래바람과 때때로 쏟아지는 폭우는 하루밤새에 그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중동지역의 국경은 항상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석유가 세계 에너지원의 주축의 역할을 하기 전에는 쓸모없는 사막지역을 얻기 위해 이지역 국가들은 싸우려 하지 않았다.

또한 中東지역은 18세기초 이후 밀어닥친 서구열강의 동진으로 전통적 회교 정치질서가 서서히 무너지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완전히 파산되고 유럽식 정치질서의 일환으로 변모하였다. 이리하여 이지역은 자체 내의 변화보다 유럽정치의 변화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주로 英國과 프랑스의 신탁통치 혹은 식민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세계 2차대전의 결과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양극체제가 형성되면서 中東의 다수 국가들이 실질적 독립을 맞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각국의 국경은 英國 등의 편의에 의해 나뉘지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부분은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 그 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때 설정된 경계선과 소유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분쟁의 씨앗을 가지게 되었다.

1990년 8월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당시 내세운 명분은 쿠웨이트가 자국 영토인 *Rumaila* 유전에서 석유를 훔쳐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 유전을 포함한 지역이 걸프국가들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바로 걸프전이 그 도화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걸프전 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프국가들 간의 국경분쟁의 현황과 석유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걸프지역 국경분쟁 현황

이란-아랍에미리트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의 *Al Nuhayyan* 국왕은 GCC동맹국들에게 이란이 수백명의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을 *Abu Musa* 섬으로부터 추방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걸프지역 언론들은 이란 당국이 *Abu Musa* 섬의 UAE 영토내의 학교, 담수화공장, 경찰서를 폐쇄하고 그 지역을 완전히 점거했다고 보도했다.

Abu Musa 섬은 걸프만 입구에 있는 전략요충지로서, 1971년 11월 29일 영국, UAE의 토후국인 *Shjarjah*, 이란, 삼국에 의해 UAE와 이란 양국이 50:50으로 분할 통치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UAE는 이란의 *Abu Musa* 섬 점령은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GCC 회원국들 및 아랍연맹은 동분쟁에 대해 UAE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는 GCC의 선도적 국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걸프국가들간의 관계가 현재와 같은 우호적 수준을 유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Abu Musa* 섬 점거에 대해 이란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서방외교관들은 *Abu Musa* 섬을 이란이 합병한 것은 걸프지역 안보에 관한 결정에서 이란을 배제하지 말도록 GCC 회원국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란의 이 같은 경고는 400만b/d에 가까운 원유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의 OPEC쿼타증대 요구자격이 있다는 최근 이란의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9월 30일 UAE의 *Al-Nuaiani* 외무장관은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란이 *Abu Musa*, *Greater Tumb*, *Lesser Tumb* 3개 섬을 침공함으로써 자국 주권을 유린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가 분쟁지역을 *Abu Musa* 섬 외에 근처의 *Greater Tumb*, *Lesser Tumb* 섬에로까지 의제를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협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란은 *Abu Musa* 섬의 및 *Tumb* 섬이 자국영토의 일부이며 *Abu Musa* 섬에 대해서만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우디-예멘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간 국경의 약 500마일은 그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항상 분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지난 3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가 분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방 석유회사들-BP, Elf, Petro-Canada, US Atlantic Richfield-에게 주권 침해라는 경고서한을 발송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후 5월 중순에 Hunt Oil Co. 및 Phillips/IPC 그룹에도 똑같은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분쟁대상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의 *Najran*, *Assir*, *Jizan* 지역과 *Hadhramant*, *Wadi aljauf*, *Marib* 및 홍해연변의 *Tihama* 해상지역인데, 이 중 *Najran*, *Assir*, *Jizan* 지역은 예멘이 사우디와의 짧은 전쟁에 패하여 1934년 5월 20일 *Taif*에서 맺은 「회교 우호 및 아랍동포에 조약(Treaty of Muslim Friendship and Arab Fraternity)」에 의해 사우디 영토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예멘은 금년 9월에 *Taif*조약은 시효만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9월 10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1934년 *Taif*조약에 의해 확정된 국경 및 미확정 국경, 해양국경에 대한 예멘의 견해를 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9월 28일~10월 5일간 양국간 전문가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이 향후 재회담 합의 수준으로 종료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관계는 걸프전 당시 예멘이 후세인 지지입장을 취함으로써 좋지 않은 상황

이었으나 영토분쟁으로 양국간의 관계는 보다 악화된 상태이다.

사우디-카타르

카타르는 지난 10월 1일 196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국경협정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9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 국경분쟁지역(카타르 수도 Doha 남쪽 130kmal Khaffoss 진지)을 공격하고 점령한 후 발표되었다.

카타르는 이지역은 명확히 국경이 설정되지 않은 분쟁지역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수차례 요청했었으나, 사우디가 이번에 무력공격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무단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분쟁의 배경은 최근 카타르가 걸프협력기구(GCC)의 대항세력인 이란측과 송수관(Water Pipeline) 건설에 합의하고 카타르 가스전 공동개발을 논의하는 등 GCC 노선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GCC 주도국인 사우디의 제재로 보는 시각이 있다.

또한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에 해상 국경분쟁의 조정지역을 맡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바레인의 주장에 동조하여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송치한데 카타르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한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이란과 UAE와의 걸프만 입구 3개섬에 대한 분쟁은 이란과 GCC 사이의 분쟁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우디-카타르 분쟁은 GCC 내부 회원국 사이의 분쟁으로써 미국 등 서방측은 GCC 결속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카타르는 최근 GCC 공동창설군을 철수함으로써 GCC 탈퇴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양국간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바레인-카타르

카타르는 지난 4월 16일 12마일 해역을 규정하고 인접 12마일 해상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규정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왕의 칙령을 발표하여, 1971년 카타르 및 바레인의 독립당시 양국 관계에 암운을 던졌던 해역에 대한 분쟁이 다시 고개를 들었으며, 종전 英國 식민권력에 의해 결정된 해상 경계에 대한 카타르측의 거부가 공식화되었다.

이에 앞서 카타르는 1991년 11월 Hawar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였는데, 이 섬은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간 해상의 바레인에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이 섬의 소유여부에 따라 양국의 해상영토의 크기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1951년 英國은 이 섬을 바레인 소유로 편입시킨 바 있으나, 독립을 맞으며 양국은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중이다.

한편, 바레인은 카타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데 대한 대응으로 동재판소에 서면으로 반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카타르 외무장관은 양국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심의하는 시기에 추가협정이 조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복잡한 국경분쟁은 일면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이나, 이의 배경은 이란-GCC 혹은 이란-사우디의 지역내 패권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이 잠재적으로 걸프지역의 역학관계, 나아가서는 석유시장을 지배하는 OPEC의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거론한 국경분쟁은 통상적·지역적인 것으로서 이것이 발전되어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조만간 석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분쟁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패권주의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악화될 경우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걸프 입구 섬을 둘러싼 이란과 GCC측과의 갈등은 이란-이라크전 후 개선 분위기를 보였던 양그룹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9월 OPEC 감시위 합의의 배경에는 이란의 아랍에미리트 도서 점령이라는 도발행위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문제의 초점은 석유자원이 국경선 근처에서 발견

되고 이러한 유전이 두나라 세나라에 걸쳐서 매장되어 있다는데 있고, 더우기 석유자원이 바로 국부(國富)를 상징한다는 인식으로 각국이 석유자원을 보다 많이 自國에 분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南美의 포크랜드 전쟁과 남지나海의 南砂群島 분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석유가 수송되는 요충지에서도 다수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향후, 이러한 국경분쟁의 불씨가 커질 경우 내년 석유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 2/4분기 시장의 경우 이라크 수출재개 예상 및 비수기 수요감퇴 등으로 시장유지를 위해서는 OPEC의 감산협조가 필수적인데, OPEC 결정의 Key를 쥐고 있는 양대세력인 이라크와 사우디의 갈등은 이러한 감산합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유개공, 주간석유뉴스)

「에너지 等級표시」 내년 확대

냉장고·승용차이어 에어컨 까지 公認기관의 시험 거쳐 등급 부여

에너지절약형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가 내년부터 확대 실시된다.

이미 냉장고와 승용차(9월 1일부터)·조명기기(10월 1일부터) 신상품은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93년 1월 1일부터는 에어컨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에너지소비효율이란 기계가 한일의 양과 그에 공급된 에너지와의 비를 말하는 것으로 효율을 판단하는 지표는 제품별로 다르다.

냉장고의 경우, 1개월동안 사용시 소비되는 전력을 나타내는 월간 소비전력으로 에너지효율을 판단할 수 있으며 월간소비전력이 적을수록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다.

에어컨은 냉방능력 즉 에어컨이 실내의 열을 한시간동안 빼낼수 있는 열량(kcal/h)을 소비전력(와트)으로 나눈값인 에너지효율계수가 높을수록 에너지절약형이다. 또 승용차는 연료 1ℓ 당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연비로서 효율을 측정하며 연비가 높을수록

에너지절약형제품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가장 좋은 등급인 1등급에서부터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까지 다섯단계로 나뉘어진다. 등급표시대상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의 전면 또는 측면(냉장고·에어컨), 제품의 측면 또는 후면(승용차), 제품포장물(조명기기)에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또 5단크기 이상의 신문광고, 전면잡지광고, 제품안내서, 텔레비전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등급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등급표시대상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공인시험기간의 효율측정시험을 거친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아 스스로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운영되는 공인시험기관은 국립공업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전자시험검사소, 에너지기술연구소(이상 전품목 시험기관),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에어컨),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등이 있다.